

(1) 농촌상황

소작관행과 소작쟁의 사태에 대한 전반적 상황 및 지역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나와 있다. 합방 이전 병작제에서는 수확배분이 지주 1, 소작인 2(3분병작)가 보통이었는데 합방 이후에는 소작료가 점차 높아져 일반적으로는 5~6할이었으며, 8~9할인 곳도 있었다.<sup>1)</sup>

전남 동부지역의 소작상황

(단위: 명·%)

구 분 지 역	1930(100정보 이상)			1931	1931
	조선인 지주	일본인 지주	계	소작지율	소작농가 비율
순 천	33	6	39	66.4	60.9
보 성	26	3	29	60.8	50.8
광 양	16	4	20	71.3	52.5
고 흥	14	5	19	45.9	30.9
여 수	12	4	16	41.8	21.7

출전: 大和和明, 「1920년대 전반기의 조선농민운동」, 『항일농민운동』, 동녘, 1984, 123쪽.

앞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전남 동부지역에는 고흥이나 여수와 같이 소작지비율·소작인비율이 약간 낮은 곳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순천의 소작지비율이 높아 지주제가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. 그러나 순천의 소작지비율이 화순·곡성·함평 등의 지역보다 높은 것은 아니었다. 그런데도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 동부지역의 농민운동이 활발했던 것은 지역민의 민족의식과 저항정신이 투철했던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다. 따라서 순천군 농민운동의 전개양상에 대한 분석은 순천이 소작농가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, 투철한 항일민족운동에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에 농민운동의 선구적인 경험을 창출해낸 지역으로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해야 한다.

1) 澤村江, 『農業政策』上, 1932, 277쪽을 보면 “조선의 소작제는 세계에 유례가 없을 만큼 불합리를 극(極)한 것으로서 농민은 지주와 사음을 위하여 부단한 가렴주구(苛斂誅求) 밑에 남김없이 착취를 당하고 있다. … … 생산자인 소작농민은 근근 수확 후 2~3개월을 지탱할 수입이 있을 뿐, 조춘해설(早春解雪)을 기다리지 못해 풀을 뜯고, 풀국으로써 그 여명을 유지하는 참상에 놓여 있었다.”고 하여, 소작료 인상으로 소작인들의 생활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.